

『기독교사회윤리』 제41집
(2018) 9~40

카스텔리옹의 평화윤리 사상에 관한 연구

박종균 (부산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성서번역과 종교적 관용
- III. 세르베투스 사건
- IV. 종교적 관용에 대한 논쟁
- V. 평화윤리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1.01>

• ABSTRACT •

A Study on Castellion's Idea of Peace Ethic

Park, Jong-kyun (Busan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tudy Castellion's thought of peace ethic which confronted that of a violently assertive Calvin in Geneva in the radical Reformation movement. And this study focuses on his advocacy of religious tolerance and pacifism. Even though Castellion had been attacked by Calvin and his followers until his death, he confronted his antagonists in a peaceful way, and urged religionists who have power in the Reformation movement to tolerate people with different views of faith. Firstly, this research examines the aspect as a humanist Castellion, who had been recognized for his scholastic ability at the Trinity University in Lyon, became a follower of Calvin and the seeds of conflict with Calvin was germinated. Secondly, a decisive moment of the full-fledged confrontation between Calvin and Castellion is considered to be a tragic history for Servetus to be burned to death in Geneva, in which their debates on the execution of Servetus is reviewed. Thirdly, the debate over religious tolerance triggered by the execution of Servetus is examined through the writings of Castellion, Calvin and Calvin's follower Beze. Lastly, this study deals with Castellion's pacifist ethic idea, explaining how he challenged orthodox theology in the era of Reformation, and exploring how much he desires and calls for world peace through his advice on a desolate France when the Huguenot war broke out.

Key words: Reformation, Sébastien Castellion, Tolerance, Heresy, Calvin, Beze, Peace

I. 들어가는 말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은 당대의 서구의 개혁적인 지식인들에게 진리의 중요성과 자유의 개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는 지적 풍토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급격한 종교적 변화로 인해 오히려 억압과 학살의 풍조를 만연케 하였다. 다시 말해 가톨릭 진영에서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역에서도 교리적인 정통이 수립됨으로써 교권을 손에 쥔 자들이 정치권력의 힘을 빌려 다른 견해(이단)에 대해 종교적으로는 물론 정치적 박해까지 자행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16세기는 교황의 절대권력은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한 국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종교적 다른 견해는 교회의 획일주의적인 정신문화를 위협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나아가 국가 사회의 존립의 걸림돌로 인식되었기에 이단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종교적이고 정치·사회적으로 마땅히 제거해야 할 반역죄로 통용되었던 것이다.¹⁾ 그렇기에 가톨릭 국가에서 이단으로 박해받았던 개신교 자신도 교파 국가를 성립시키면서 규정된 정통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 이단으로 박해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²⁾ 이단에 대한 개신교 정통주의의 견해는 자신들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소유했기에 다른 견해는 개인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까닭에, 이단을 박해하고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선한 일이라 확신해 마지않았다.³⁾ 한국교회 풍토 역시 칼뱅과 그의 추종자들

1) Wilbur Jordan,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oleration in England From the Ascension of James I to the Convention of the Long Parliament*, vol. I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129.

2) Joseph Lecler & Marius François Valkhoffk, *Les Premiers défenseurs de la liberté religieuse* (Paris: Les Éditions du Cerf, 1969), 26-28.

3) Harold Grimm, *The Reformation Era 1500-1650* (London: Macmillan Pub. Com., 1973), 588.

이 종교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에게 가했던 폭력에 보다 관대함을 보이고 나아가 그것에 대해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것(칼뱅의 오류)은 판단의 잘못이었지 심정의 잘못은 아니었다. 따라서 비록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시대정신에 따라 용서되어야 할 오류였다”⁴⁾는 샤프(Phillip Schaff)의 말은 자주 접하는 친 칼뱅적 문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진리의 명분으로 잔혹한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불관용의 암흑시대에 종교적 관용과 양심의 자유를 외친 카스텔리옹(Sébastien Castellion)은 신앙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소유한 자들을 정치적으로 박해하려는 지배적인 종교체제의 횡포와 종교 문제에 개입한 세속 당국의 무력 사용에 반대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수호자였다 할 수 있다.⁵⁾ 다른 신앙적 견해를 가진 자들에 대해 박해와 학살 그리고 전쟁까지 불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신앙적 견해에 대한 불관용적 교리주의에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신앙의 진실성의 바로미터는 교리의 우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다른 신앙이나 견해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카스텔리옹의 신학은 당대 재세례파 평화주의와는 결을 달리하는 평화사상이 틀림없으며 오늘날 기독교의 평화주의 윤리 연구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사려 된다.

먼저, 본 연구는 리옹의 삼위일체 대학에서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은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옹이 종교개혁운동에 뛰어들어 칼뱅의 추종자가 되는 과정과 칼뱅과 갈등의 씨앗이 싹트는 계기를 검토한다. 둘째, 칼뱅과 카스텔리옹의 본격적인 대결은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에서 화형당하는 사

4) Phil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I, 690.

5) Joseph Lecler & Marius François Valkhoffk, 118.

건이 크나큰 계기로 자리하는 바, 세르베투스의 처형을 둘러싼 칼뱅과 카스텔리옹의 논쟁이 검토될 것이다. 세째, 세르베투스의 처형 사건으로 촉발된 종교적 관용에 대한 논쟁을 카스텔리옹과 칼뱅과 칼뱅의 추종자 베즈의 저술을 통해, 본 연구는 카스텔리옹이 이단에 대한 왜곡된 개념과 세상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이단이 아니라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에서 찾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넷째, 본 연구는 카스텔리옹의 평화윤리 사상을 논구할 것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위그노 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발표한 『황폐해진 프랑스에 대한 충고』를 통해 그가 얼마나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촉구했는지를 다룰 것이다.

아쉽게도 서구에서는 카스텔리옹에 대한 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급진적 종교개혁 운동의 관점에서 신비주의와 복음주의적 이성주의자(the evangelical Rationalist)로서의 카스텔리옹의 사상을 소개한 강남수의 연구,⁶⁾ 세르베투스의 처형을 둘러싸고 벌어진 칼뱅과 카스텔리옹의 양심의 자유의 문제에 대한 이견을 소개한 박건택의 연구,⁷⁾ 세르베투스 사건에서 칼뱅은 박해자, 세르베투스는 순교자, 박경수의 카스텔리옹은 관용의 옹호자로 평가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16세기라는 시대정신과 칼뱅의 진리에 대한 열정을 고려해야할 것을 촉구하는 칼뱅 옹호적인 연구⁸⁾와 역시 박경수의 카스텔리옹의 생애와 그의 주요 저작을 간략하게 소개한 연구,⁹⁾

6) 강남수, “카스텔리옹의 종교적 급진사상,” 홍치모 외, 『急進宗教改革史論』(서울: 느티나무, 1993): 131-153.

7) 박건택, “칼뱅과 카스텔리옹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신학지남』 제66권 2호 (1999): 66-97. 박건택은 결론부분에서 칼뱅은 자신의 신학에 충실했을 뿐이며, 칼뱅의 『세네카 관용론 주석』에서처럼 칼뱅의 관용은 잔인성과 동정심의 중용이었기에 의도적 잔인성이 아니라 인간적 동정심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 중용적인 엄격한 잔인성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칼뱅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

8) 박경수, “마카엘 세르베투스 사건에 대한 재평가: 칼뱅은 프로테스탄트 불관용의 대표자였는가?” 『한국기독교교회』 제17집 (2005): 51-79.

그리고 끝으로 이성과 믿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카스텔리옹과 칼뱅/베즈(Theodore Beze)의 이단논쟁을 다룬 양신혜의 연구¹⁰⁾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의 특징은 칼뱅의 독단적 교조주의가 생산하는 반인간주의에 주목하기 보다는 교리 우선주의의 시대적 당위성을 더 부각시킴으로써 카스텔리옹의 사상이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한국 기독교의 현실에서 그의 종교적 관용 사상에 대한 진솔한 논의가 애초에 차단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카스텔리옹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자료가 그에 관한 전기이다. 그 첫 번째가 두 권으로 된 뷔송(Ferdinand Buisson)의 기념비적인 카스텔리옹 전기다(1892). 에띠엔느 지랑(Etienne Giran)은 뷔송이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을 추가했고 보다 더 논쟁적인 전기를 썼다(1914). 구기스베르크(Hans Rudolf Guggisberg)도 매우 중요한 전기를 썼으며(1997), 들로르모(Delorme)의 전기(1965)는 학문적으로 카스텔리옹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여기서는 뷔송, 지랑, 구기스베르크의 전기와 츠바이크(Stefan Zweig)의 카스텔리옹 평전 『폭력에 대항하는 양심』(*Castellio gegen Calvin, oder ein Gewissen gegen die Gewalt*)¹¹⁾을 참고할 것이다.

II. 성서번역과 종교적 관용

카스텔리옹은 16세기 당대 지적인 세계의 중심 중의 하나인 리옹에서

9) 박경수,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옹의 생애와 저작들-16세기 관용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사학회지』 제31집 (2012): 73-104.

10) 양신혜, “카스텔리오의 종교적 관용의 신학적 토대로서의 이성에 대한 이해,” 『성경과 신학』 제74집 (2015): 1-31.

11) Stefan Zweig, *Castellio gegen Calvin, oder ein Gewissen gegen die Gewalt* (Frankfurt: S. Fischer Verlag GmbH, 1987), 74-75.

5년간 수학하면서 그의 학문적 열정과 탁월성으로 인해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인문학자나 신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카스텔리옹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인문주의를 갱신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려는 길 대신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새로운 길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리옹에서 루터의 신앙을 소유했던 자들이 화형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한편으로는 종교재판의 잔혹성에 혐오를 느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단으로 처형된 자들의 용감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 1541년 칼뱅이 제네바로 재 입성했을 때 파렐의 강력한 추천으로 젊은 카스텔리옹은 제네바 초등교육 기관인 “리브 콜라주”(collège de la Rive)의 교장에 임명되고 방되브르(Vandoeuvres) 교회의 설교까지 담당하게 된다.

학생들의 라틴어 학습 교본으로 성서 이야기를 라틴어 대화 형식으로 꾸며진 교본인 『거룩한 대화』(*Dialogi Sacri*)를 통해 그는 오랫동안 개신교 세계에서 교육학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칼뱅과의 우호관계는 2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첫 번째 갈등의 요인은 칼뱅이 카스텔리옹이 작업하는 성서번역의 검열자로 자처한 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카스텔리옹은 라틴어 신약성서 출판을 허락받기 위해 번역의 일부분을 칼뱅에게 보여주었다. 제네바에서는 칼뱅의 동의나 허락 없이 책을 인쇄할 수 없던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미 제네바에서 이미 자신이 서문 작업에 직접 참여한 성서가 번역되어 있고 그것을 공인된 성서로 인식하고 있었던 칼뱅에게 새로운 성서 번역의 시도는 불손함으로 인식되었기에 카스텔리옹의 번역에 대한 토론이나 조언보다는 그것에 대한 일방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칼뱅에게서 성서 출판은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검열의 문제 일뿐이었다.¹²⁾

12) 칼뱅이 피에르 비레(Pierre Viret)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카스텔리옹의 성서 번역이

두 번째 갈등 요인은 카스텔리옹이 자신이 방되브르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공식적인 목사로 인정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시의회는 즉각 허락했으나 칼뱅은 두 가지의 교리적 이유를 문제 삼아 거부했다. 칼뱅은 카스텔리옹이 구약의 아가서를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이라 해석하지 않고 세속적인 연애시로 보았다는 점에서 성서의 존엄을 훼손했다는 점과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가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고백에 대한 견해가 자신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 카스텔리옹의 목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¹³⁾

세 번째 갈등 요인은 제네바 교회 목사들의 위선적인 오만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으로 인해 발생했다. 제네바에 페스트가 기승을 부렸을 당시 (1542-1545) 목사들이 보여준 비굴한 태도 때문이었다. 제네바의 종교당국은 모든 환자는 사흘 이내 목사를 침대로 불러야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했으나 정작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종교적 위안을 주기보다는 페스트 병원으로 보내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었다. 오히려 시 당국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한 명의 성직자라도 파송해주길 간청했으나, 칼뱅은 그 위상을 고려하여 면제되었고 실제로 카스텔리옹 이외에 자원하는 자가 없었다. 하지만 카스텔리옹은 종교국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보는 임무가 허락되지 않았다.¹⁴⁾ 그런데 목사들이 바울서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주해를 하는 자리에서 카스텔리옹은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사람들을 검열하고 심판하지만 말고 한 번쯤 자기 자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얼마나 칼뱅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 드러난다. “지금 우리 세바스티앙의 망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웃기기도 하거니와 분노케 합니다. 사흘 전에 내게로 오더니 자신의 신약성서 번역판을 출간하도록 허가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Castellio gegen Calvin*, 79-80.

13) Roland Bainton, *The Travail of Religious Liber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1), 17.

14) *Castellio gegen Calvin*, 71.

않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¹⁵⁾ 칼뱅은 이러한 비판이나 도덕적 토론을 규율위반으로 간주하고 종교국이 아니라 세속 법정 에 “카스텔리옹은 성직자의 체면을 훼손시켰다”는 죄목으로 고소해버렸다.¹⁶⁾ 카스텔리옹은 시당국에 스스로 사직을 청원했고 제네바시는 수락함으로써 칼뱅의 뜻은 관철되었다.

칼뱅의 영향력 아래 있는 스위스 도시들은 어느 곳에서도 카스텔리옹에게 설교하고 연구하는 일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기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호구 대책을 위해 밤낮으로 노동하는 와중에도 그는 라틴어, 프랑스어 성서번역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¹⁷⁾ 그러나 1551년 라틴어 번역 성서가 출판되는 순간, 바젤에서 비교적 평온한 삶을 영위했던 카스텔리옹은 칼뱅과 그의 충복인 베즈의 집요하고 끊임없는 공격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견뎌내야 했다.

라틴어 성서의 서문은 영국의 어린 왕 에드워드 6세에게 헌정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당시 영국의 귀족들이 저명한 교회의 교사들과 상의를 한 후에 종교개혁운동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기에, 카스텔리옹은 왕과 그의 측근에게 서문을 통해 관용(*tolérance*)의 이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카스텔리옹의 관용은 정통적인 견해와 달리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온유, 사려 깊음, 절제로 대하는 관용이며, 특히 영적인 논쟁에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불사하는 자들도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용이다.¹⁸⁾ 이러한

15) Ibid., 85-86.

16) Ibid., 87.

17) Ibid., 90-91.

18) Ferdinand Buisson, *Sébastien Castellion, sa vie et son œuvre(1515-1563)* vol.1 (Geneva: Droz, 2010), 307.

주장은 어린 왕을 호위했던 썸머셋 공작에게 보냈던 아래의 칼뱅의 편지와 대조해보면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

왕이시여, 제가 듣기로 당신께서는 왕과 왕국에 반역하는 두 부류의 역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복음 뒤에 자신을 감추고 모든 것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광신의 무리들이며, 다른 부류는 로마의 적그리스도에게 미신적으로 복종할 것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왕과 신을 공격할 때 당신에게 위임된 칼로 그들을 처벌함이 마땅합니다.¹⁹⁾

카스텔리옹은 라틴어 성서 서문을 통해 종교적 관용의 옹호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다른 신앙적 견해를 가진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앙적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에 대한 명백한 오해이며, 박해자들이 박해행위를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으로 주의 명령과 이름으로 실천한다고 우기는 것이 최악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것을 카스텔리옹은 “늑대의 잔인함을 양의 옷으로 위장하는 짓”이라 비판한다.²⁰⁾

다른 한편으로 살인, 강간, 도둑질과 같은 자연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지만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모호함이 내재하고 있기에 쉽게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런 모호함과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견해의 다름을 이유로 박해하고 살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카스텔리옹은 “이런 경우 사랑이 아니고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다. 사랑만이 모든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무지를 추방할 수 있다”²¹⁾고 호소한다.

19) Buisson vol.1, 308.

20) Sébastien Castellion, “Preface to the Latin Bible, Dedicated to Edward VI,” *Concerning Heretics*, trans. and ed. Roland Baint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35), 213.

카스텔리옹의 성서 번역은 제네바에서 사용되던 성서를 개정할 필요를 드러내주었고 칼뱅과 베즈는 이 작업을 착수했다. 그들의 신약성서는 1559년 10월 10일자 서문과 함께 1560년 초에 발행되었는데, 거기엔 변덕스럽고 무모한 자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사탄이 선택한 하수인이 바로 카스텔리옹이라는 충격적인 비난을 담고 있다. 카스텔리옹에 대해 개, 거짓말쟁이, 사기꾼, 신성모독자, 위장된 재세례파, 이단 옹호자, 간부, 사람을 죽음으로 안내하는 인간 등의 비난을 넘어 성서 서문에서 드디어 사탄의 하수인이라 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²²⁾ 이러한 극단적 언어폭력의 배후에 자리한 것은 바로 세르베투스 사건이었다.

III. 세르베투스 사건

1553년 10월 27일 스페인 출신의 신학자이자 지리학자이며 내과의사인 세르베투스가 제네바 샹펠 언덕에서 화형 당했다. 세르베투스는 1531년에 삼위일체 교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삼위일체의 오류에 관하여』(*De Trinitatis Erroribus*)라는 소책자를 출판했다. 16세기에 삼위일체 교리를 비판하는 것은 가톨릭교회, 주류 종교개혁 진영은 물론 재세례파에서도 배척되는 주장이었다. 도망자 세르베투스는 미셸 드 빌뇌브(Michel de Villeneuve)라는 가명으로 여러 곳에서 다방면의 학문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하다 프랑스의 비엔(Vienne)에 은밀히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칼뱅과의 서신 교환에 집착하던 중 장차 『기독교재건』(*Christianismi Restitutio*)이라는 제목으로 은밀하게 출판될 소책자의 견본을 칼뱅에게 보내 그로부터 형제애적인 답변을 고대하는 우를 범했다. 칼뱅의 『기독교강요』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의 저술은 교회의 일치나 교리적 진리에 우선하여 성

21) Ibid., 215.

22) Buisson vol. II. 251.

서의 본래적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후일 칼뱅과 세르베투스²³⁾가 주고받은 편지와 책의 내용이 밀고 됨으로써²³⁾ 세르베투스는 신분이 발각되어 종교재판에 회부되지만 탈옥에 성공하게 된다. 세르베투스는 제네바로 가서 거기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투옥되어 칼뱅의 심문을 받았다. 물론 화형 선고는 칼뱅이 내린 것이 아니라 제네바 시의회가 결정한 것이지만 칼뱅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화형이 아닌 추방을 제안했다더라면 그리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제네바에서의 칼뱅의 위상이었다.²⁴⁾

이 재판과 선고를 둘러싼 사실들은 종교개혁사의 명백한 불명예에 해당한다. 시대의 논리를 앞세우거나 종교개혁자 대다수가 세르베투스의 처형에 동조했던 것을 역사적 증거로 내세운다하더라도 칼뱅을 선불리 옹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용인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고로 우리는 칼뱅과 그의 추종자들과는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

23) 칼뱅의 비서 귀욤 드 트리에(Guillaume de Trie)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사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연스런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이단에 대한 밀고의 의도가 분명하다. “그 어디에서도 화형 받아 마땅한 이단을 그곳(가톨릭 진영)에서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 내가 언급하는 그 사람은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교회에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포용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신성모독으로 넘쳐나는 그 사람의 책까지 출판해주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 그런 사람들은 평범하게 죽여서는 안 되고 잔인하게 화형시켜야 합니다.” Jean Calv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앞으로 CO로 표기), 59 vols (Brunsvigae: C.A. Schwetschke, 1866-1900), (<https://archive-ouverte.unige.ch/unige>) CO VIII, 836-837.

24) 이에 대해 칼뱅의 옹호자들은 칼뱅의 제네바에서의 위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로 1553년에 칼뱅은 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칼뱅이 세르베투스²³⁾에 대한 비엔 종교당국에 대한 밀고 등 칼뱅의 정치적 음모를 완전 무시함으로써 칼뱅을 미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그 어떤 변명으로도 칼뱅의 세르베투스의 살해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은 확보될 수 없다. 세르베투스 사건 이전에 이미 도미니크 수도사 출신 종교개혁자 볼섹이 예정론에 대해 이견을 보이자 즉각 감금하고 추방시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칼뱅은 자신의 이론에 반대하는 자들을 이단이나 국사범으로 취급했던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Stefan Zweig, *Castellio gegen Calvin*, 118-119.

다. 몽벨리아르(Montbéliard)에 종교개혁 사상을 이식했으며 1535년까지는 칼뱅파에 속해 있었던 피에르 투상(Pierre Toussaint)은 세르베투스가 체포되어 이단으로 판결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열성적인 칼뱅의 추종자 파렐에게 “우리는 종교적인 문제에 사법적 판결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²⁵⁾라고 항의하며 칼뱅의 이단 박해를 반대했고 심지어는 제네바의 개혁자가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author)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²⁶⁾ 말하자면 종교적 폭력에 카스텔리옹 한 사람만 분개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칼뱅과 대결하기엔 용기가 부족했던 여타 지성인들과는 달리 카스텔리옹은 칼뱅의 비판자로서 그와의 위험천만한 논쟁에 당당히 뛰어들어 종교개혁운동의 순수한 이상, 즉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 저항했던 것이다.

세르베투스의 처형은 명백한 불법이었다.²⁷⁾ 재판과정에서 세르베투스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당했으며, 그를 투옥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들이 완전 무시되었고, 그에게는 변호인도 피의자로서의 최소한의 인권도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 절차는 엉터리였으며 당대의 제네바 시의 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²⁸⁾ 이 모든 과정에서 칼뱅은 권력과 동떨어진 순수한 교회의 신학자라고만 간주할 수 없다.

25) Buisson vol. I, 344.

26) Hans Guggisberg, *Sebastian Castellio, 1515-1563*, trans. and ed. Bruce Gordon (Vermont: Ashgate Publishing Co., 2003), 121.

27) 세르베투스는 제네바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체포당할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었다. 그가 쓴 책들은 전부 제네바 밖에서 출판되었으며 제네바에서 이단 사상을 공개적으로 펼친 적이 없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칼뱅이 세르베투스를 사전에 고소도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체포한 것은 완벽한 불법이며 독재적 발상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츠바이크는 이를 두고 나폴레옹의 앙기앙 공작 기습살해 사건에 비견하고 있다. Stefan Zweig, *Castellio gegen Calvin*, 114.

28) Stefan Zweig, *Castellio gegen Calvin*, 115-116

칼뱅의 세르베투스에 대한 증오심은 이미 1546년 파렐에게 쓴 편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세르베투스가 제네바로 온다면, 그때 저에게 조금의 영향력이라도 있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목숨을 구할 길이 없게 할 것입니다.”²⁹⁾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가톨릭교회와 그것의 종교재판을 그토록 혐오했던 종교개혁운동의 지도자 칼뱅이 자신의 비서를 시켜 세르베투스가 칼뱅에게 썼던 편지 17통과 1553년 초에 인쇄된 책자를 로마가톨릭의 종교재판의 증거물로 비서의 사촌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칼뱅이 세르베투스와 주고받은 편지와 견본 원고를 종교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해서 그를 어떤 처지로 내몰고자 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세르베투스가 트리에와는 단 한통의 편지도 주고받지 않았음을 복기하면 그 증거물의 출처는 명확하다). 1553년 6월 17일 세르베투스를 산채로 불태워 죽일 것을 선고한 제네바 시민법정의 판결은 칼뱅이 제공한 종교재판의 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³⁰⁾ 칼뱅이 세르베투스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 보여준 집념을 통해 목적은 수단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겠다.³¹⁾ 그렇기에 이 대목에서 츠바이크가 칼뱅의 비열성에 대해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그리고 적지 않은 개신교인들이 당시의 관용이나 양심의 자유가 통용되지 않았던 시대정신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칼뱅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의 이유가 드러난다.³²⁾

29) Buisson vol. I, 336; CO XII, 767.

30) Roland Bainton, *Michel Servet, hérétique et martyr* (Geneva: Droz, 1953), 95-99.

31) 칼뱅의 비서 트리에의 한 편지에서 칼뱅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발견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칼뱅이 세르베투스 처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나는 칼뱅 선생에게서 그대들에게 보내는 것을 가까스로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의무적인 것이란, 사법적 권력을 지니지 못한 자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이단을 추적하기보다 오히려 교리를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세르베투스와 편지와 책의 원고를 이단을 입증하는 증거물로 넘긴 자가 바로 칼뱅임을 드러내주는 편지의 내용인 것이다. CO VIII, 842.

IV. 종교적 관용에 대한 논쟁

칼뱅이 몇몇 스위스 도시와 여러 신학자들에 대한 자문을 뷔송이 재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칼뱅이 애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다른 지역이 제네바의 결정에 전폭적인 호감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으며, 대체적인 반응도 사형선고를 명확히 지시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³³⁾ 이에 더해 세르베투스의 처형 이후 확산되는 자신에 대한 비난 소문과 이탈리아 출신 망명자 들 사이에서 굳건히 자리한 세르베투스 가르침의 영향력을 일소하기 위해 칼뱅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꼈다.³⁴⁾ 경건의 교리(*pietas doctrina*)가 흔들리게 되면 종교도 참된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³⁵⁾는 것이 칼뱅의 확고부동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뱅은 1554년 2월 『정통신앙의 옹호』(*Defensio orthodoxae fidei contra Michaelis Serveti*)를 통해 책임을 당국에 전가하면서, 동시에 이단을 화형시킨 당국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했다. 먼저 칼뱅 자신은 폭력에 대해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톨릭교회의 종교재판의 잔혹성을 탄식하고 나서 자신은 “남몰래 끊임없이 세르베투스를 더 나은 생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³⁶⁾고 변명한다. 결국 세르베

32) 최고의 종교개혁가가 가장 반기독교적이고 반성서적이었던 가톨릭의 종교재판에 이단을 밀고해서 죽이려했던 바로 그 비열성을 말한다. *Castellio gegen Calvin*, 137.

33) 스위스의 모든 교회가 세르베투스의 견해가 죄악이라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칼뱅은 세르베투스가 투옥되어 비인간적 조건에 처해 있는 동안 취리히, 바젤, 베른, 샤프하우젠 등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써서 처형을 피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놓았다. 그러나 주요 도시 네 곳의 교회 지도부가 엄격하게 다루는 것엔 동의했지만 화형으로 처형하라는 요구는 전혀 하지 않았다. 베른시의 의견은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 당국(christlichen Magistrat)에 어울릴 법 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처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경고까지 담고 있다. Stefan Zweig, *Castellio gegen Calvin*, 124-125.

34) CO VIII, 461.

35) Ibid., 464.

투스를 잔혹하게 처형한 장본인은 칼뱅 자신이 아니라 당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어설프게 당국의 이단자 세르베투스의 처형은 옳았다는 점을 강변한다. 당국자는 종교를 수호할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세속적인 책임만 감당한다면 그것은 미숙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³⁷⁾ 칼뱅은 주장의 전거를 성서에서 찾았다.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수호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특히 신명기 13장 6-16절을 통해 참된 종교에서 벗어난 이단을 처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최고의 성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라 단정한다. 여기에는 부모자식간의 사랑이나 우정 그리고 인간애가 개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중한 것이기에 이단 처벌을 반대하거나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단(배교자)과 공범에 다름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³⁸⁾ 칼뱅은 또한 신약성서의 바울서신과 목회서신을 근거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선 이단을 처벌하는 칼이 위정자의 손에 주어졌음을 재차 강조하여³⁹⁾ 세르베투스의 처형을 합리화 했다.

칼뱅의 『정통신앙의 옹호』가 출판된 지 한 달 만에 카스텔리옹은 바젤에서 『이단에 관하여』(*De Haereticis an sint persequendi*)를 벨리우스(Martinus Bellius)라는 이름으로 출판했다. 이 글은 원시교회에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명성 있는 교회 스승들이 이단 문제에 대한 견해를 모은 것이다. 그리고 벨리우스는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글 세 편을, 각각 카스텔리옹, 클라인베르크(Georg Kleinberg), 몽포르(Basile Montfort)라는 이름으로 이단들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벨리우스는 칼뱅이 『기독교강요』 초판본에서 탄원했던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자들이

36) Zweig, *Castellio gegen Calvin*, 141.

37) CO VIII, 474.

38) Ibid., 475-476.

39) Ibid., 478-479.

사회와 교회의 일치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들을 칼로써 박해하고 그들의 인간성의 권리가 부정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각인시켰다.⁴⁰⁾ 여기서 우리는 카스텔리옹이 내리는 이단의 개념을 주목하게 된다. 칼뱅과 같은 종교재판관들은 성서를 근거로 이단을 규정하지만 카스텔리옹은 성서에서 이단자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성서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와 그들에 대한 형벌에 관한 언급은 있다. 그러나 세르베투스 사건에서 보듯, 이단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욕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단으로 박해했던 재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모범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식의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카스텔리옹은 교만한 자만이 스스로를 그렇게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지식으로 또는 지식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한다. 교만은 잔인함과 박해를 수반하기에 어느 누구도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것에 대해 인내하지 않으려 한다. 견해라는 것이 사람의 수만큼 많을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파가 다른 종파들을 정죄하고 홀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수백 년 동안 논쟁의 거리가 되어왔으나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 문제에 관해 권력을 가진 자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추방하고, 쇠사슬로 묶어 투옥시키고, 불태우고, 교수대에 목을 매는 형벌을 가하고 끔찍한 분노를 가하는 일들이 자행되어 왔던 것이다.⁴¹⁾

40) Calvin, CO I, 77; Castellion, "Concerning Heretics," *Concerning Heretics*, 203.

41) *Concerning Heretics*, 122-123.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완벽할 수도 없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크기에,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다른 견해를 가진 자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관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모든 것이 그토록 명료하고 분명하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인식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교도보다 더 지혜롭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선량하고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⁴²⁾

이단이란 개념은 절대적일 수 없다. 가톨릭에서는 칼뱅파가 이단이고 칼뱅파에게는 가톨릭이 이단이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참된 신앙인은 제네바에서 이단이 될 수도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나라에서는 화형당한 종교적 범죄자가 다른 나라에서는 순교자로 칭송될 수 있다.⁴³⁾ 그렇게 해서 카스텔리옹은 이단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무모하리만큼 용기 있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이단이라 부르는데 이는 바로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⁴⁴⁾

카스텔리옹은 세상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이단이 아니라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에서 찾고 있음이 분명하다. 광신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종교와 신앙만이 진리라고 오만하게 고집한다. 그는 이러한 오만한 광신적 교조주의가 불관용을 야기하고 불관용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만과 야만의 탈출구는 오직 종교적 관용이다. 정통신학

42) Ibid., 132-133.

43) Ibid., 159.

44) Ibid., 132.

자들은 불관용의 대명사인 학살행위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는 일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른 것이라 핑계를 대지만 카스텔리옹에게는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욕보이는 것이다.⁴⁵⁾ 카스텔리옹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는 교리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순수한 도덕적 삶에 존재하는 것이다.

나아가 카스텔리옹(클라인베르크)은 위정자는 강도나 배신자나 거짓 증인 같은 자들은 처벌할 수 있지만, 종교 문제나 신학적 교리 문제에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마치 의사가 다른 의사와 논쟁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 칼에 의존하려는 행위가 터무니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학자가 자신의 논리를 변증하기 위해 말이 아닌 위정자의 무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훌륭한 의사는 위정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데 신학자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가?”⁴⁶⁾

또한 몽포르의 이름으로는 이단은 신성모독자와 다르다는 것과 신성모독자는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사실상 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최악의 신성모독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통렬하게 외친다.⁴⁷⁾ 헤센의 영주 빌헬름에 대한 헌사로 된 프랑스어 판에서 그는 이단에 대한 종교적 관용 정신은 절정에 달한다.

이단으로 의심되는 한 명의 선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수백 수십만의 이단을 살려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그

45) Ibid., 134-135.

46) Ibid., 220-221.

47) Ibid., 229.

리고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신성 모독자 그리고 이단이라는 구실로 처형되었습니다.⁴⁸⁾

그의 간절한 호소는 세속권력과 결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종교의 폭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로 파악될 수 있다. 그 이상으로 행사되는 힘의 사용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신성모독의 죄로 간주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단에 대한 관용을 호소하고 교회는 영적인 칼의 사용에 스스로를 제한해야 하며 위정자는 견해를 달리하는 이단을 처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모독하는 자들에 한해 처벌하더라도 부득이 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추방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연 16세기 최고의 “종교적 관용의 시금석”⁴⁹⁾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칼뱅의 위탁을 받은 베즈는 1554년 9월 카스텔리옹의 『이단에 관하여』를 논박하는 글 『反벨리우스론』(*L'Anti-Bellius*)⁵⁰⁾을 발표해서 카스텔리옹처럼 종교적 자유를 말하는 자들을 양떼를 늑대에게 넘겨 잡아 먹히게 하는 사악한 자들이라 고발하고 이단들은 부모를 살해하는 것보다 천 배나 더 나쁜 범죄자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세르베투스 처형의 정당성을 옹호했고 카스텔리옹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했다.⁵¹⁾ 베즈의 논리는 이단에 대해 관용한다면 삼위일체나 성찬, 칭의

48) Ibid., 139.

49) Hans Hillerbrand, *Christendom divided: The Protestant Reformation* (New York: Corpus, 1971), 89.

50) 원제목은 『위정자의 이단 처벌권』(*De haereticis a civili magistratu puniendis libellus, adversus Martini Bellii farraginem et novorum Academicorum sectam*)이지만 일반적으로 *L'Anti-Bellius*라 불리고, 영어로는 *The Romonstrator: Sebatiem Castellio*로 번역되어 베인튼의 *The Travil of Religious Liberty* (New York: Harper, 1958)에도 수록되어 있다.

51) 여기서 베즈의 유명한 “양심의 자유는 악마의 학설”(Libertas conscientiae diabolicum dogma)이라는 주장과 “독자적으로 사유하는 불손보다는 차라리 불과 칼로 멸절시키

등과 관련된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기독교는 이단이나 무신론자들의 노리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⁵²⁾ 그러하기에 위정자들은 양심에 명령할 수는 없지만, 말씀의 교리가 충실하게 밝혀지도록 교회를 지원할 의무가 있기에,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억압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충실히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⁵³⁾

카스텔리옹은 『칼뱅의 글 논박』(*Contra libellum Calvini*)으로 칼뱅의 『정통신앙의 옹호』에 대해 응수했다. 세르베투스도 칼이 아니라 펜으로 공격했을 뿐인데 공권력을 동원하여 칼과 불로 대응한 칼뱅의 처사는 잘못이라는 것이다.⁵⁴⁾ 말하자면 카스텔리옹의 일관된 주장은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며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결코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인일 뿐이다.”⁵⁵⁾ 살해한 것을 변명하기 위해 아무리 거창한 종교적 진리를 명분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그것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교리 수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윤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카스텔리옹이 살던 시대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이기에 더욱 그렇다.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에 칼뱅처럼 구약(신명기 13장 6-9절)의 엄격한 형벌의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며 악의적이라 지적한다.⁵⁶⁾

자”는 주장이 펼쳐진다. Zweig, *Castellio gegen Calvin*, 164.

52) Buisson vol. I, 359.

53) Buisson vol. II, 27.

54) Castellion, “Reply to Calvin’s Book”, *Concerning Heretics*, 268.

55) Ibid., 271.

56) Ibid., 281.

카스텔리옹은 베즈의 『反벨리우스론』에도 침묵하지 않고 『위정자의 처벌 불가론』(*De haereticis a civili magistratu non puniendis*)⁵⁷⁾으로 맞섰다. 카스텔리옹은 신성모독자와 이단자를 구분하고 신성모독자에게는 위정자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지만 교리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이단은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물론 카스텔리옹의 관용은 오늘날의 관용 개념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상반되게도 무신론자나 배교자는 기독교 국가에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단자이기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연종교를 위배하는 행위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이며 신성을 모독하는 배교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텔리옹의 관용은 무신론자나 배교자의 처형이 아니라 추방까지만 허용한다.⁵⁸⁾

V. 평화윤리

카스텔리옹은 『의심과 신뢰의 기술에 관하여』(*De arte dubitandi et confidendi*)를 통해 종교개혁시대의 정통주의 신학에 도전했다. 칼뱅이 교리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강조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카스텔리옹의 신학사상은 윤리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칼뱅이 교리를 척도삼아 이단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의 일치를 명분으로 기꺼이 처벌하고 박해할 수 있었지만, 카스텔리옹에게서 교리란 성서의 본질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신앙을 말한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 어떤 종파에 속했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보편적 신앙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57) 카스텔리옹의 수고(手稿)는 16세기 전문연구가 브루노 베커(Bruno Becker)가 1938년 로테르담에 소재한 레몬스트란트 교회 도서관에서 발견하였고 1971년에 이르러서야 출판되었다.

58) Castellion, *De haereticis non puniendis* (Geneva: Droz, 1971), 7.

것이였다. 물론 보편적 신앙에는 여러 교리들이 포함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리의 내용이나 정확성의 인식보다는 윤리적으로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참된 기준인 것이다.⁵⁹⁾ 삶에서 윤리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신앙은 탁월한 교리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과는 무관한 것이다. “기독교가 최상의 종교라는 것을 입증하는 길은 그것이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있다.”⁶⁰⁾ 이 논리는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박해를 서슴지 않는 가톨릭과 개신교 양측에 촉구하는 신앙의 진리이기도 하다. 주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교리적 진리는 다양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윤리적 범주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진리를 잘 아는 현명하는 자는 자비로운 자이다. 남을 정죄하고 불관용적인 자들은 진리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참된 진리에 이를 때까지는 관용하며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⁶¹⁾

카스텔리옹은 칼뱅을 필두로 한 종교개혁신학의 성서절대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서는 모호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까지 있을 수 있다고 용기 있게 주장했다. 종교의 진리는 성서가 그것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지성의 도움을 받은 이성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⁶²⁾ 성서의 확실함과 모호함을 식별하는 능력인 이성은 “하나님의 딸”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같은 것”이다.⁶³⁾ 종교개혁

59) Elisabeth Hirsch, “Castellio’s ‘De Arte Dubitandi’ and the Problem of Religious Liberty,” B. Baker, *Autour de Michel Servet et de Sébastien Castellion* (Haarlem: H.D. Tjeenk Willink, 1953), 247-248.

60) Castellion, “Concerning Doubt and Belief,” Bainton, *Concerning Heretics*, 287.

61) Castellion, *De haereticis non puniendis*, 25ff.

62) Castellion, “Concerning Doubt and Belief,” Bainton, *Concerning Heretics*, 294.

63) “이성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딸이라 할 수 있고, 문자나 예전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세상은 변할지언정 하나님처럼 지속되고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의 지도자들이 성서중심의 개신교에서 성서해석의 절대권 권한을 소유하고 스스로가 신앙적 진리의 최종 판단자로 군림하면서 불관용의 반신앙적 행태를 비판한 준거로 카스텔리옹은 신앙주의를 넘어서는 보편적 이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카스텔리옹은 인문주의적 개혁신학자라 할 수 있으며, “자유 개신교의 선구자”⁶⁴⁾라 부를 수 있겠다.

윌리엄스(George Williams)는 카스텔리옹의 이성주의 배후에는 중세 말의 내적 경건을 강조하는 독일 신비주의 전통의 맥이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세 독일 신비주의와의 접촉은 중세교회로부터의 이탈의 조건이 된다는 것인 바, 신비주의의 특징은 반교리주의, 말하자면 내적인 경험에 입각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교통에 의해서만 모든 것에 확신을 갖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 같은 경험은 전통적인 가치 기준을 의심하게 되고 교회의 절대적인 교리체계에 비판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는 것이었다.⁶⁵⁾

카스텔리옹의 신비주의적 경향은 그가 1557년 라틴어와 프랑스로 번역했던 작자 미상의 『독일신학』(*Theologia Deutsch*)⁶⁶⁾에 붙인 서문에서

이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고 싶다 ... 헬라문명에서는 로고스라고도 불린다.” Castellion, “Concerning Doubt and Belief,” *Concerning Heretics*, 297.

64) Joseph Lecler, *Toleration and the Reformation*, vol. 1 (New York: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0), 359.

65) George Williams, *The Radical Reform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823.

66) 14세기말 타올러(Johannes Tauler)의 영향을 받은 익명의 독일 신학자들이 쓴 신비주의적인 성격의 소논문들로서 루터가 “독일신학”이라 명명했다. 독일 신비주의는 뉘른베르크 오니시우적 신비주의나, 라틴 신비주의(베르나르, 보나벤투라 등)와는 달리 주관적 정신 체험을 교육과 서적 보급 및 학교 설립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려 하였기에 실천적 신비주의라 불린다. 특히 『독일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타올러는 에크하르트가 신의 현존재의 경험을 마음과 생각에 국한시켜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주의에 호를 수 있음을 비판하여, 신과의 합일을 내면에서 외적 삶의 영역으로 넓힐 것을 주장했다. 다른 신비주의자들에게 ‘자기포기’는 개인적이었지만 타올러에게는 이웃을 섬기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었다. 따라서 독일 신비주의 역시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책임과 도덕적 혁신이 강조되었다. Martin Luther, *Theologia*

잘 드러난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 바로 이 세상에서 전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⁶⁷⁾이라 말하면서 기존의 정통교리 체제 하에서 형편없는 죄인으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이성에 의한 주관적인 실천 능력을 고양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자율적 주체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카스텔리옹은 신앙의 경험에 대해, 경험은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신앙의 경험이 없는 자를 언어로 가르칠 수 없으며, 의심을 통해 판명된 참된 지식만이 감정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⁶⁸⁾ 이런 진술은 성서 무오류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인 교권체제와 성직자들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갖는다. 말하자면 교리의 정통주의자들은 가르칠 수 없고 경험되어야 할 내용을 강제로 가르치고 주입시키려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이다.

관용의 옹호자 카스텔리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기에 자신의 신학적 경쟁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그는 칼뱅처럼 자신의 견해만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거나 자신의 주장을 완벽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강요한 적이 없었다. 라틴어 번역 성서 서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학문적·인격적 겸손함의 덕을 갖추었다. 그는 자신이 성서의 모든 구절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독자가 자신의 번역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서에는 모순이 적지 않기에 자기의 해석은 하나의 해석일 뿐 절대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켰다.⁶⁹⁾

Deutsch, 노진준 역, 『마르틴 루터의 독일신학』(서울: 은성, 1991), 152-154 참고.

67) Steven Ozment, *Mysticism and Dissent: Religious Ideology and Social Protest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3), 39.

68) Ibid., 40-44.

69) Castellion, “Preface to the French Bible,” *Concerning Heretics*, 258.

그는 평화주의자로서 동시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만행을 저지르는 것에 반대했고 모두가 평화롭게 상호존중하며 살 수 있기를 염원했다. 프랑스에서 위그노 전쟁이 발발하자 『황폐해진 프랑스에 대한 충고』(*Conseil à la France Désolée*)를 애끓는 심정으로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프랑스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두 종교가 공존하고 평화롭기 위해서는 오직 종교적 관용밖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⁷⁰⁾ 프랑스의 황폐의 원인은 양심을 억압하는 종교 때문인데, 개신교 신앙의 자유로운 양심을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는 가톨릭과 박해에 맞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맞서는 개신교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종교전쟁은 양심의 억압에서 비롯된 것이며, 과거나 당대의 역사에서 무력으로 양심을 억압하려고 했던 시기보다는 평화로웠던 시절이 훨씬 인간에게 이로웠다는 것을 많은 예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만일 가톨릭측이 루터주의를 궤멸시키려고 노심초사하지 않았다면 1562년 종교전쟁 발발 당시와 같은 정도의 위축된 위상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박해를 가함으로써 더 많은 반란과 저항만을 낳았을 뿐이었다는 것이다.⁷¹⁾ 개신교의 경우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준 영적 무기를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폭력에 호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길을 가고 말았다. 특히 츠빙글리가 스위스의 가톨릭 주들과 전쟁을 벌이는 대신 평화를 선택했다더라면 츠빙글리파의 종교적 위상은 당시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이고 본인 자신도 카펠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⁷²⁾ 양심의 억압을 통해 참된 신앙을 유지하거나 전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오산이며 그런 방식으로는 위선적인 가짜 그리스도인들만 양산할 뿐이다.⁷³⁾

70) Castellion, "Counsel to France," *Concerning Heretics*, 258-260.

71) *Ibid.*, 260.

72) Castellion, "Counsel to France," *Concerning Heretics*, 260-261.

73) 카스텔리옹은 스페인에서 양심의 자유를 거슬러 강압으로 세례를 받게 했던 사라센들

종교전쟁의 원인으로 복음과 거리가 먼 가톨릭과 개신교 양측의 불관용의 태도에 있음을 비판하는 카스텔리옹이 개신교에 강하게 복기시키려는, 복음 때문에 과거 가톨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가 이제는 자신들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칼로 박해함으로써 가톨릭을 전철을 밟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서로 학살을 자행하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양측에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공멸되고 말 것임을 호소한다. “한 마디로 오늘날 기독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파로 분열되어 있다. 각각의 종파는 자신들만을 참되다고 여기고 나머지는 이단이라 여긴다. 만일 우리가 이단에 대한 박해의 율법을 적용시킨다면, 적을 완전히 멸절시켰던 미디안 전쟁이라도 치르자는 것인가”⁷⁴⁾ 양측의 획일적인 교리에 의한 양심의 강탈 행위는 그것을 통해 진리의 사수는커녕 인간성의 파멸을 자초하고 마는 것이다.

『황폐해진 프랑스에 대한 충고』는 가톨릭과 개신교 양측으로부터, 특히 1563년 리옹에서 개혁교회 공의회로부터 정죄되었다. 혹자는 시대를 앞선 카스텔리옹의 종교적 관용과 평화의 외침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이었으며 칼뱅과 그의 추종자들이 훨씬 현실적이었다고 평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곧바로 1598년 앙리 4세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낭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이상을 평화적으로 실현시켰기 때문이다. 그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유연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역사적인 칙령

과 유대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주지시킨다. 16세기 당시 이미 사라센들과 유대인들은 원래 종교로 돌아가고 과거보다 더 기독교와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포도주가 약간 담겨 있는 병에 물을 많이 부으면 포도주 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인간이다. 포도주가 늘어나기는커녕 처음의 포도주마저 망쳐버리고 마는데 말이다.” Castillion, “Councel to France,” *Concerning Heretics*, 262.

74) Ibid.,

도 조인되지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칼뱅과 베즈에 의해 정당화 된 교리주의가 종교전쟁을 앞당긴 제일의 원인이라 해도 무방하다. 종교개혁자들의 정당전쟁 신학에 정면으로 맞섰던 카스텔리옹의 용기는 20세기 간디, 루터 킹 목사 등 그 어떤 평화주의 사상가들보다 더 위대한 평화 사상가라 평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VI. 나가는 말

역사학자 레비스(Ernest Lavisse)는 현실주의자 칼뱅의 업적에 비해 카스텔리옹의 것은 역사적으로 미미할 뿐이라고 그의 사상적 의미를 평가절하 한다.

그(카스텔리옹)는 아무 것도 구성한 것이 없다. 그는 확고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모호하다. 그와 대조적으로 칼뱅은 교리문답과 확고한 교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이 칼뱅의 강점이다. 그는 엄청난 일을 했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의 개혁교회는 칼뱅에게 신세지고 있다.⁷⁵⁾

카바넬(Patrick Cabanel) 역시 프랑스 개신교사를 다루면서 세르베투스 사건에서의 카스텔리옹의 저항을 의미 있게 취급하면서도 레비스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상을 준다. “(카스텔리옹과 칼뱅 중에서) 자유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의 유산을 저술에서만 끌어 모을 수 있는 패배한 선구자 카스텔리옹인가? 아니면 가톨릭 종교의 프랑스 옆구리에 도시적 박차를 가하고 누구도 침묵할 수 없게 하는 아이

75) Patrick Cabanel, “Le Calvin de Ferdinand Buisson,” *Bulletin de la Société d'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1(2009), 276.

디어를 주입시킨 폭력적인 승리자 칼뱅인가?⁷⁶⁾를 묻고 있다. 그러나 카스텔리옹 저술들이 교회의 일치이라는 명분과 그로 인해 가해진 폭력으로 인해 사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겨우 빛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학자들이 취하는 객관적 중립성이 과연 카스텔리옹의 사상을 칼뱅과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카스텔리옹은 교회를 세우려고 주장한 적이 없었으며, 단지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기만을 원했던 것이고, 이와 반대로 칼뱅은 관용의 정신 보다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바탕 한 위대한 업적(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확신해 마지않는)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복음적 삶이 교회제도에 우선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제도가 복음적 삶에 우선되어야 하는가는 오늘의 교회에 던지는 현재 진행형의 물음이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의 답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양심을 옹호했던 그의 외침은 오늘도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하겠다. 온갖 형태의 불관용의 근본주의가 지구촌 곳곳에서 따리를 틀고 기회만 주어지면 여지없이 야만을 드러내는 오늘날에도 16세기의 카스텔리옹의 사상은 여전히 주목해야할 위대한 사상임에 틀림없다.

76) Patrick Cabanel, *Histoire des protestants en France: XVIe-XXIe siècle* (Paris: Fayard, 2012), 65.

참고문헌

- 강남수. “카스텔리오의 종교적 급진사상.” 홍치모 외. 『急進宗教改革史論』. 서울: 느티나무, 1993.
- 박건택. “칼뱅과 카스텔리옹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신학지남』 제66권 2호 (1999).
- 박경수. “마카엘 세르베투스 사건에 대한 재평가: 칼뱅은 프로테스탄트 불관용의 대표자였는가?” 『한국기독교교회』 제17집 (2005).
- _____. “세바스티앙 카스텔리옹의 생애와 저작들-16세기 관용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사학회지』 제31집 (2012).
- 양신혜. “카스텔리오의 종교적 관용의 신학적 토대로서의 이성에 대한 이해.” 『성경과 신학』 제74집 (2015).
- Bainton, Roland. *Michel Servet, hérétique et martyr*. Geneva: Droz, 1953.
- _____. *The Travail of Religious Liber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1.
- Buisson, Ferdinand. *Sébastien Castellion, sa vie et son œuvre(1515-1563)* vol.1. Geneva: Droz, 2010.
- Cabanel, Patrick. “Le Calvin de Ferdinand Buisson.” *Bulletin de la Société d’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1(2009).
- _____. *Histoire des protestants en France: XVIe-XXIe siècle*. Paris: Fayard, 2012.
- Calvin, Jea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Brunsvigae: C.A. Schwetschke, 1866-1900). (<https://archive-ouverte.unige.ch/unige>)
- Castellion, Sébastien. *Concerning Heretics*, trans. and ed. Roland Baint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35.
- _____. *De haereticis non puniendis*. Geneva: Droz, 1971.
- Grimm, Harold. *The Reformation Era 1500-1650*. London: Macmillan Pub. Com., 1973.
- Guggisberg, Hans. *Sebastian Castellio, 1515-1563*, trans. and ed. Bruce Gordon Vermont: Ashgate Publishing Co., 2003.

- Hillerbrand, Hans. *Christendom divided: The Protestant Reformation*. New York: Corpus, 1971.
- Hirsch, Elisabeth. "Castellio's 'De Arte Dubitandi' and the Problem of Religious Liberty." in B. Baker, *Autour de Michel Servet et de Sébastien Castellion*. Haarlem: H.D. Tjeenk Willink, 1953.
- Jordan, Wilbur.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oleration in England From the Ascension of James I to the Convention of the Long Parliament*. vol. I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 Lecler, Joseph. *Toleration and the Reformation*. vol. 1. New York: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0.
- _____. & Marius François Valkhoffk. *Les Premiers défenseurs de la liberté religieuse*. Paris: Les Éditions du Cerf, 1969.
- Luther, Martin. *Theologia Deutsch*. 노진준 역. 『마르틴 루터의 독일신학』. 서울: 은성, 1991.
- Ozment, Steven. *Mysticism and Dissent: Religious Ideology and Social Protest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3.
- Williams, George. *The Radical Reform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 Zweig, Stefan. *Castellio gegen Calvin, oder ein Gewissen gegen die Gewalt*. Frankfurt: S. Fischer Verlag GmbH, 1987.

논문투고일: 2018년 7월 16일

심사개시일: 2018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11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급진 종교개혁운동에서 칼뱅의 독단에 맞섰던 카스텔리옹의 평화윤리 사상에 대한 연구이며, 그것은 종교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에 대한 종교적 관용을 옹호한 그의 평화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연구자는 당대의 권력자 칼뱅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공격을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맞섰으며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에게 관용을 호소했던 카스텔리옹의 사상을 그의 저술들을 통해 고찰한다. 먼저, 리옹의 삼위일체 대학에서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은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옹이 종교개혁운동에 뛰어들어 칼뱅의 추종자가 되는 과정과 칼뱅과 갈등의 씨앗이 싹트는 계기를 검토한다. 둘째, 칼뱅과 카스텔리옹의 본격적인 대결은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에서 화형당하는 사건이 크나큰 계기로 자리하는 바, 세르베투스의 처형을 둘러싼 칼뱅과 카스텔리옹의 논쟁이 검토된다. 셋째, 세르베투스의 처형 사건으로 촉발된 종교적 관용에 대한 논쟁을 카스텔리옹과 칼뱅과 칼뱅의 추종자 베즈의 저술을 통해 검토한다. 칼뱅의 『정통신앙의 옹호』, 카스텔리옹의 『이단에 관하여』, 카스텔리옹의 글을 반박한 베즈의 『反벨리우스론』, 칼뱅과 베즈에 대해 반박한 카스텔리옹의 『칼뱅의 글 논박』과 『위정자의 처벌 불가론』이 고찰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카스텔리옹의 이단 개념과 세상의 혼란에 대한 책임이 이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에 있음을 주목한다. 넷째, 본 연구는 카스텔리옹의 『의심과 신뢰의 기술에 관하여』를 통해 종교개혁시대의 정통주의 신학에 어떻게 도전했는지를 해명하고, 프랑스에서 위그노 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발표한 『황폐해진 프랑스에 대한 충고』를 통해 그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규명한다.

주제어: 종교개혁, 카스텔리옹, 관용, 이단, 칼뱅, 베즈, 평화
